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박재현 수석연구위원(insightful@bnkfg.com)
박승현 수석연구위원(jjune00@bnkfg.com)

동남권 기업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지역은 인도차이나반도이다. 투자비중은 베트남, 증가율은 말레이시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지시장 진출이 주된 투자목적이며 제조업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고 도소매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차이나’로 부각되고 있는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은 인프라투자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내수시장 성장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 본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성장에 거는 기대만큼 리스크도 커 인도차이나반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투자여건 및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인도차이나반도, 동남권 해외직접투자의 1/3 차지

2016년 동남권 기업의 최대 해외직접투자¹⁾ 지역은 인도차이나반도²⁾이며 전체 투자중 34.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16.5%), 멕시코(9.7%), 미국(7.7%), 일본(5.6%)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투자지역 순위변화를 보면 인도차이나반도와 중국은 2014년 이후 1~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14년 3위에서 2016년 4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멕시코가 신규 진입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일본은 5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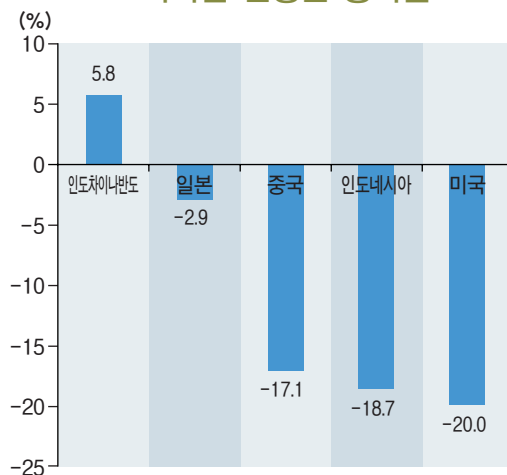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인도차이나반도에 대한 투자는 2013년 167건에서 2016년 198건으로 연평균 5.8%의 빠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미국과 중국은 20% 내외의 투자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동남권 기업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

순위	2014년	2015년	2016년
1	인도차이나반도 (24.5)	인도차이나반도 (28.2)	인도차이나반도 (34.8)
2	중국 (20.5)	중국 (20.9)	중국 (16.5)
3	미국 (14.0)	미국 (8.6)	멕시코 (9.7)
4	인도네시아 (5.6)	멕시코 (6.9)	미국 (7.7)
5	일본 (5.3)	일본 (4.8)	일본 (5.6)

주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



주 : 2014~2016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1)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간의 장기적 자본이동으로서 대부분 지분투자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기술, 경영기술, 판매 기술 등이 포함된다. 본고는 해외직접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공동투자 건수와 증액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2)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 위치는 동쪽은 남중국해, 서쪽은 벵골만에 면하며 인도와 중국의 2대 문화권의 중간에 위치한다.

투자비중은 베트남, 증가율은 말레이시아가 높은 상황

2016년 기준으로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에 대한 투자는 베트남(72.7%), 말레이시아(8.1%), 태국(7.6%), 캄보디아(5.1%), 미얀마(4.0%), 라오스(2.5%)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對베트남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8.3%에 달하면서 투자비중은 2014년 66.3%에서 2016년 72.7%까지 높아졌다. 베트남은 동남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투자비중(2016년 20.9%)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는 저렴한 인건비, 정치적 안정성, 내수시장 성장세 등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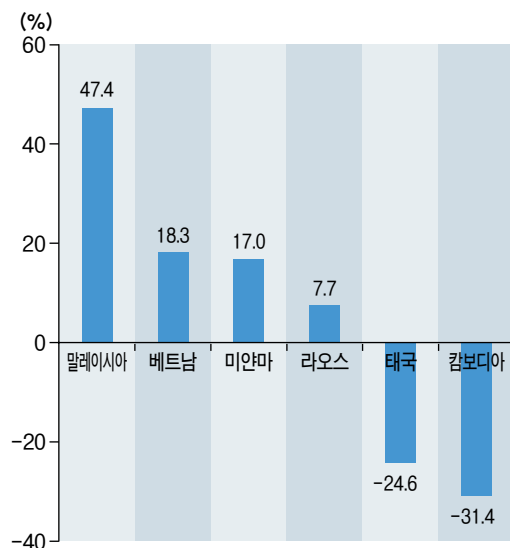
한편 말레이시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최근 3년간 투자는 연평균 47.4%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며 미얀마와 라오스도 각각 17.0%, 7.7% 증가하였다. 반면 태국과 캄보디아는 각각 24.6%, 31.4%의 투자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순위	2014년	2015년	2016년
1	베트남 (66.3)	베트남 (78.8)	베트남 (72.7)
2	태국 (14.7)	캄보디아 (7.3)	말레이시아 (8.1)
3	캄보디아 (7.6)	미얀마 (6.2)	태국 (7.6)
4	말레이시아 (4.3)	말레이시아 (4.1)	캄보디아 (5.1)
5	미얀마 (3.8)	태국 (3.1)	미얀마 (4.0)
6	라오스 (3.3)	라오스 (0.5)	라오스 (2.5)

주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별 연평균 증가율



주 : 2014~2016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목적은 현지시장진출, 저임금활용, 수출촉진 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목적은 2016년 기준으로 현지시장진출이 67.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수출촉진(13.8%), 저임금활용(8.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도차이나반도에 투자한 동남권 기업은 현지시장진출(66.7%) 다음으로 저임금활용(18.7%)이 수출촉진(12.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도차이나반도는 개발도상국으로 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 노동집약적 산업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저임금활용 비중은 부산(22.3%), 경남(16.1%), 울산(7.1%) 순으로 높다. 부산의 경우 대표적 노동집약 산업인 신발, 섬유, 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30.1%로 경남, 울산과 비교해 높기 때문이다.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

순위	국내기업	인도차이나반도에 투자한 동남권 기업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1	현지시장진출 (67.5)	현지시장진출 (66.7)	현지시장진출 (60.2)	현지시장진출 (92.9)	현지시장진출 (70.4)
2	수출촉진 (13.8)	저임금활용 (18.7)	저임금활용 (22.3)	저임금활용 (7.1)	저임금활용 (16.1)
3	저임금활용 (8.1)	수출촉진 (12.1)	수출촉진 (14.6)	수출촉진 (0)	수출촉진 (11.1)
4	자원개발 (3.0)	자원개발 (0.5)	자원개발 (0)	자원개발 (0)	자원개발 (1.2)
5	기타 (7.6)	기타 (2.0)	기타 (2.9)	기타 (0)	기타 (1.2)

주 : 1) 2016년 기준
 2) ()내는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제조업 투자비중 가장 높으나 도소매업이 빠르게 증가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에 대한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6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13.6%), 건설업(7.6%)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2014년 71.2%에서 2016년 62.6%로 매년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도차이나반도의 내수시장 성장에 따른 도소매, 건설 등 타업종의 진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도소매업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2014년 6.5%에서 2016년 13.6%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베트남은 해외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로 최근 5년간 가처분소득이 연평균 13% 증가하고 유통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내에서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과 전자부품 제조업은 최근 3년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기 두 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다수의 OEM 업체들이 인도차이나반도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 기업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비중

(%)

업종	2014년	2015년	2016년
제조업	71.2	67.4	62.6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3.0)	(20.0)	(18.5)
(전자부품 제조업)	(8.4)	(20.7)	(16.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7.6)	(4.6)	(1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	(6.9)	(8.9)
도소매업	6.5	7.8	13.6
건설업	5.4	7.3	7.6
운수업	2.7	2.1	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4.9	4.1	2.5

주 : ()는 제조업내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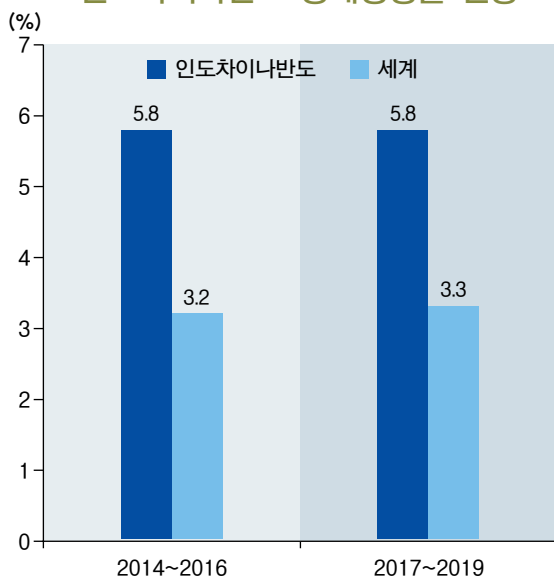
인도차이나반도의 높은 투자매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인도차이나반도의 2014~2016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8%로 세계 경제성장률(3.2%)의 1.8배 수준에 달한다. 2017~2019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5.8%로 세계 평균(3.3%)을 상회하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미얀마(8.0%), 라오스(7.5%), 캄보디아(7.1%), 베트남(6.0%), 말레이시아(6.0%) 순으로 대부분 6% 이상의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은 수출감소, 높은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침체, 군부 쿠데타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등의 영향으로 0.8%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7~2019년에도 라오스(7.4%), 미얀마(7.3%), 캄보디아(7.0%)의 경제성장률은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2.8%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차이나반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IBRD, Bloomberg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	2014~2016 (%)	2017~2019 (%)
베트남	6.0	6.7
태국	0.8	2.8
캄보디아	7.1	7.0
말레이시아	6.0	5.0
미얀마	8.0	7.3
라오스	7.5	7.4

자료 : IBRD, Bloomberg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 부각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중심주의 확산, 브렉시트 진행 및 유럽 주요국의 선거일정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신흥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81.4%)와 라오스(69.1%)는 외국인자본 유출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대외건전성 지표

(%)

구분	취약기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총외채/GDP	-	38.8	63.1	33.2	48.1	9.4	84.6
외환보유액/총외채	-	36.3	49.2	116.7	73.9	146.9	9.0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00%초과	42.4	81.4	33.9	19.5	8.0	69.1
총외채/총수출	120%초과	44.8	85.6	46.2	74.5	45.2	317.2
외채원리금상환비율	15%초과	3.8	6.1	6.9	6.2	0.5	10.9

주 : 2015년 기준

자료 : World Bank, IMF

미국의 TPP 협상 철회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는 對미국, 對EU 수출비중이 높은 캄보디아,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중국의 경기둔화는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라오스, 미얀마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수출비중

(%)

구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對 미국	20.9	9.4	11.2	24.9	1.2	1.1
對 중국	10.4	13.0	11.1	4.7	21.0	32.1
對 EU	19.2	10.1	10.1	38.4	4.3	6.6

주 : 2015년 기준

자료 : IMF

고성장에 거는 기대만큼 리스크도 커 국가별 투자여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확대 정책에 의한 투자자금이 인도차이나반도로 지속 유입되면서 해당 국가들의 세계경제 위상이 빠르게 제고되고 있으며 동남권 기업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내수 중심의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도 '포스트차이나'로 부각되고 있는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검토 및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성장에 거는 기대만큼 리스크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 2017)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90개국 중 말레이시아(23위)와 태국(46위)은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미얀마(170위)는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캄보디아(131위), 라오스(139위), 미얀마(170위)는 7%대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투자 매력은 높지만 창업, 전기공급 등 다수 부문에서 기업경영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 2016)에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를 조사³⁾한 결과, 베트남과 라오스는 고급인력의 부족,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금융접근성, 태국은 정부 불안정성, 캄보디아는 부패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3) 각국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16개 항목(금융접근성, 정책불안정성, 비효율적인 정부관료주의, 인플레이션, 부패, 세율, 조세 규정의 복잡성, 인프라공급부족, 혁신역량부족, 낮은 노동윤리, 부족한 고급인력, 정부불안정성, 노동규제, 외환규제, 열악한 공중보건, 범죄및절도)중 5개를 순위별로 선택하게 하여 항목별 순위 산출

국가별 기업경영여건 평가

(위)

구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한국
종합순위	82	23	46	131	170	139	5
창업	121	112	78	180	146	160	11
건축인허가	24	13	42	183	66	47	31
전기공급	96	8	37	136	149	155	1
재산권등록	59	40	68	120	143	65	39
자금조달	32	20	82	7	175	75	44
소액투자자보호	87	3	27	114	179	165	13
세금납부	167	61	109	124	119	146	23
수출입절차	93	60	56	102	159	120	32
법적분쟁해결	69	42	51	178	188	88	1
사업청산	125	46	23	72	164	169	4

주 : 2016년 기준
 자료 : World Bank

따라서 인도차이나반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각 국가별 다양한 고유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금융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KOTRA를 통한 현지 조사,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회계, 법률 등의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철저한 사전검토 요구된다.

해외진출기업 현지지원 서비스

종류	상세 내용
해외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존 진출기업의 현지경영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의 전문 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물류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반품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 자생력 배양을 목적으로 해외 주요 교역거점에서 사무공간과 마케팅, 법률, 세무, 회계 자문 등을 지원
중소기업 KOREA DE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밀착지원을 위하여 현지 투자인허가 담당기관에 KOREA DESK를 설치, 파견 직원이 상주하며 제반 지원 서비스를 제공

자료 : KOTRA

국가별 고유 위험요인

구분	환율 및 주가 동향	고유 위험요인(Country-specific risk)
베트남		<p>(공공부채) 과도한 공공부채 규모 심각(IMF 경고) (재정수지) 정부지출 증가로 만성적 재정적자 지속 (은행부실) 은행의 부실채권, 과도한 여신규모 우려 (국영기업개혁)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로 더딘 진척</p>
말레이시아		<p>(공공부채) 지속 증가중인 공공부채 및 우발채무 (가계부채) 주변국 대비 과도한 가계부채 (환율) 링깃화 평가절하로 수입물가 급등 및 소비 위축 (석유) 재정수입의 약30%이상을 에너지 관련 산업에 의존 (정치)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으로 정권신뢰도 저하</p>
태국		<p>(경제구조)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로 대외 변동성에 취약 (수출) 전자제품·농산물 등 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출 감소 (가계부채)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비둔화 우려 (노동력) 생산가능인구, 고급인력 부족 등 노동력 저하 (정치) 군부집권 장기화로 정치적 불안 지속</p>
캄보디아		<p>(산업구조) 봉제·의류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 (인프라) 열악한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달러통용) 미 달러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 (은행부실) 급격한 신용증가 우려 (정치) 야권탄압, 폭압정치로 정치적 불안정 상태 (사회) 파업 및 노동쟁의 빈번, 공무원 부정부패 심각</p>
미얀마		<p>(물가) 높은 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 (산업구조) 낮은 노동생산성, 취약한 제조업 기반 (인프라) 전력, 도로, 통신 등 사회 인프라 열악 (천연가스) 전체 수출의 약40%를 천연가스에 의존 (정치) 문민정부 출범에도 군부 영향력 잔존 (사회) 소수민족 및 종교간 갈등, 군부의 부정부패 심각</p>
라오스		<p>(공공부채) 주변국 대비 과도한 공공부채 (공적개발원조) 해외원조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인프라)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과도한 물류비 발생 (구리) 전체 수출의 약45%를 구리 등 광물에 의존 (수출입) 태국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교역의존도</p>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 “태국 경기침체의 배경과 시사점,” 2016.1
 국제무역연구원, “2017년 베트남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점검,” 2016.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2016.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_____, “2017년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2016.12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_____, “2016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2017.2
 한국은행,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2016.7
 IMF, “Fiscal Monitor,” 2016.10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7,” 2016.10
 _____,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2017,” 2016.12
 _____, “Reducing Vulnerabilities,” 2016.10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2017,” 2016.9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BNK금융그룹,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

함께 웃음짓는 행복한 세상,
BNK금융그룹의 꿈입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이
큰 행복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BNK금융그룹이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제2017-03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성세환

편집인 구교성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7년 3월 29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